

SMART & SWEET CARE

SMART BABY CARRIER DR. MACARON DESIGN STORY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 흑자는 이것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숭고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부모는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죠. 이를 테면 매일 수십 번씩 아이를 안아주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아기띠는 필수불가결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기띠는 어깨와 허리에 큰 부담을 주고 투박한 디자인으로 외출 시에 스타일을 망치는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벤처 육성프로그램인 C-Lab은 오랫동안 방치된 이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아기와 엄마가 가장 편안하게 안을 수 있게 하면서 아기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 아기띠 Dr. Macaron이 탄생하였습니다.



DESIGN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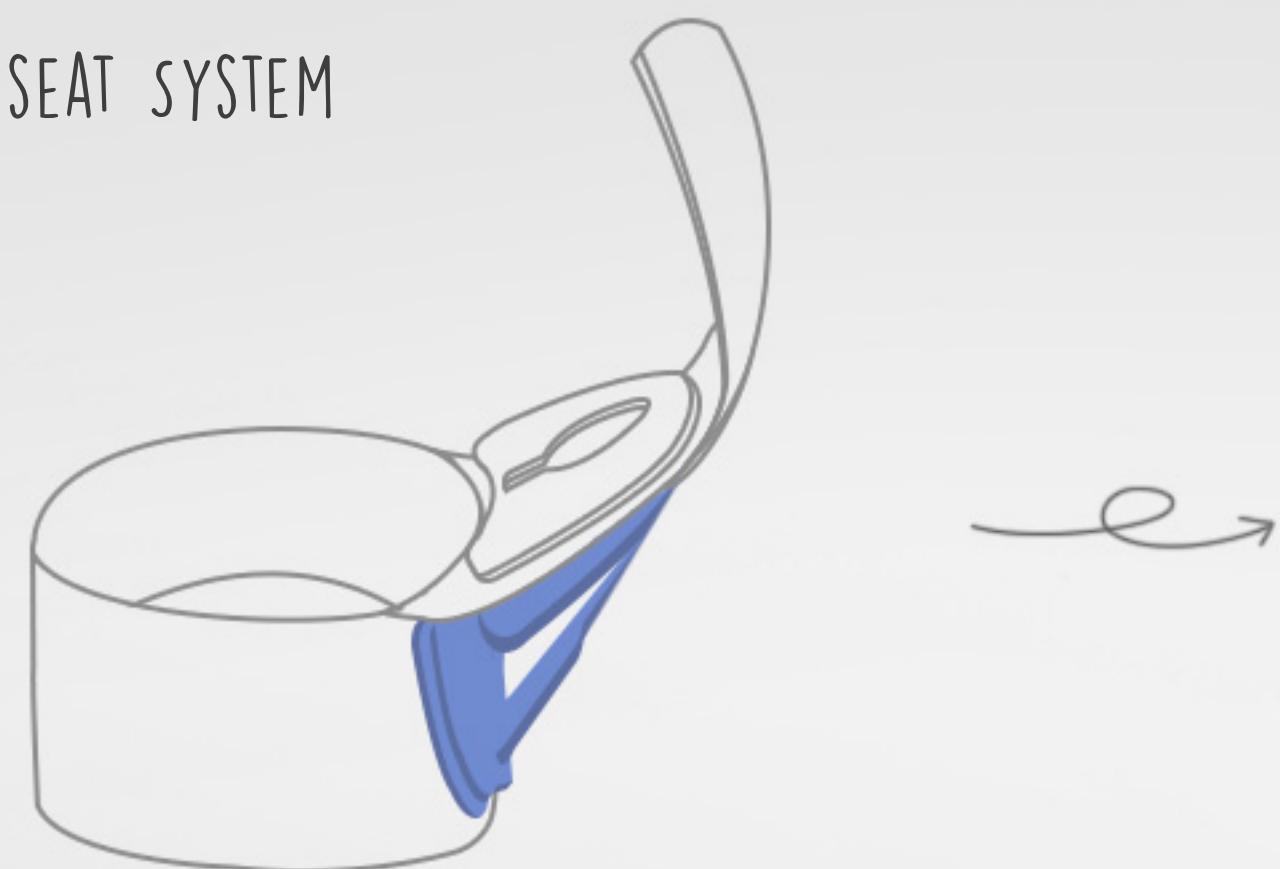
WEIGHT DISTRIBUTION

“ 5개월 승준이 엄마 아라씨는 매일 어깨를 주무릅니다. 아이를 오래 안다 보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나을까 싶어 아기띠를 사용하지만 고정된 형태의 아기띠 역시 오래 착용하면 어깨가 다시 아프곤 합니다. 슬슬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아라씨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더 편하고 통증이 덜한 아기띠가 없을까 고민합니다. ”



아기의 무게를 줄여줄 수는 없지만 특정 부위에만 무게가 집중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Dr. Macaron은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가변형 힙시트(Convertible Hipseat System)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힙시트를 옮리면 어깨에 집중된 아기의 하중을 허리로 분산해 어깨의 통증을 줄여주도록 만들어 아기를 안은 엄마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돋습니다.

CONVERTIBLE HIPSEAT SYSTEM



ICONIC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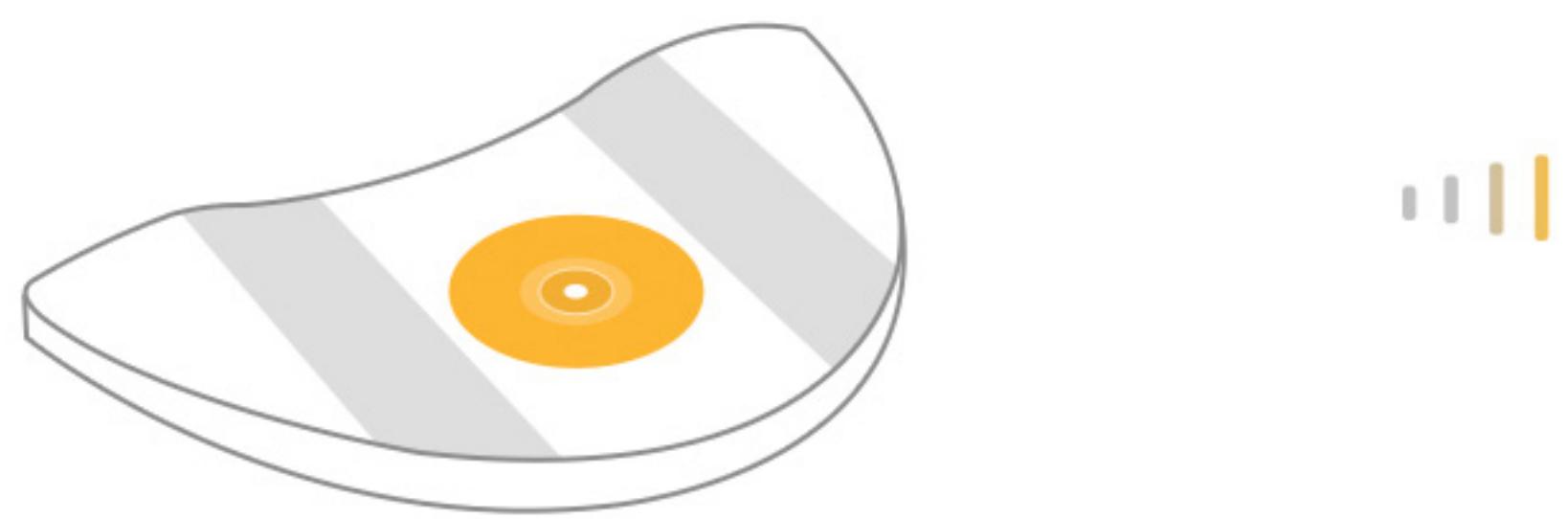
“ 결혼 전에는 패션스타 소리를 듣곤 했던 지혜씨는 출산 후 대부분의 패션은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외출 시 필수 아이템인 아기띠의 투박한 디자인은 도저히 적응이 안됩니다. 아기띠를 멀 때마다
정말 아줌마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아기띠는 없는 걸까요? ”

Dr. Macaron은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시각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아기띠를 자주 세탁하는 엄마들의 사용패턴을 바탕으로 보통 어두운 색이던 기존 아기띠와는 달리 밝은
아이보리색을 겉감으로 활용해 깔끔하면서도 순수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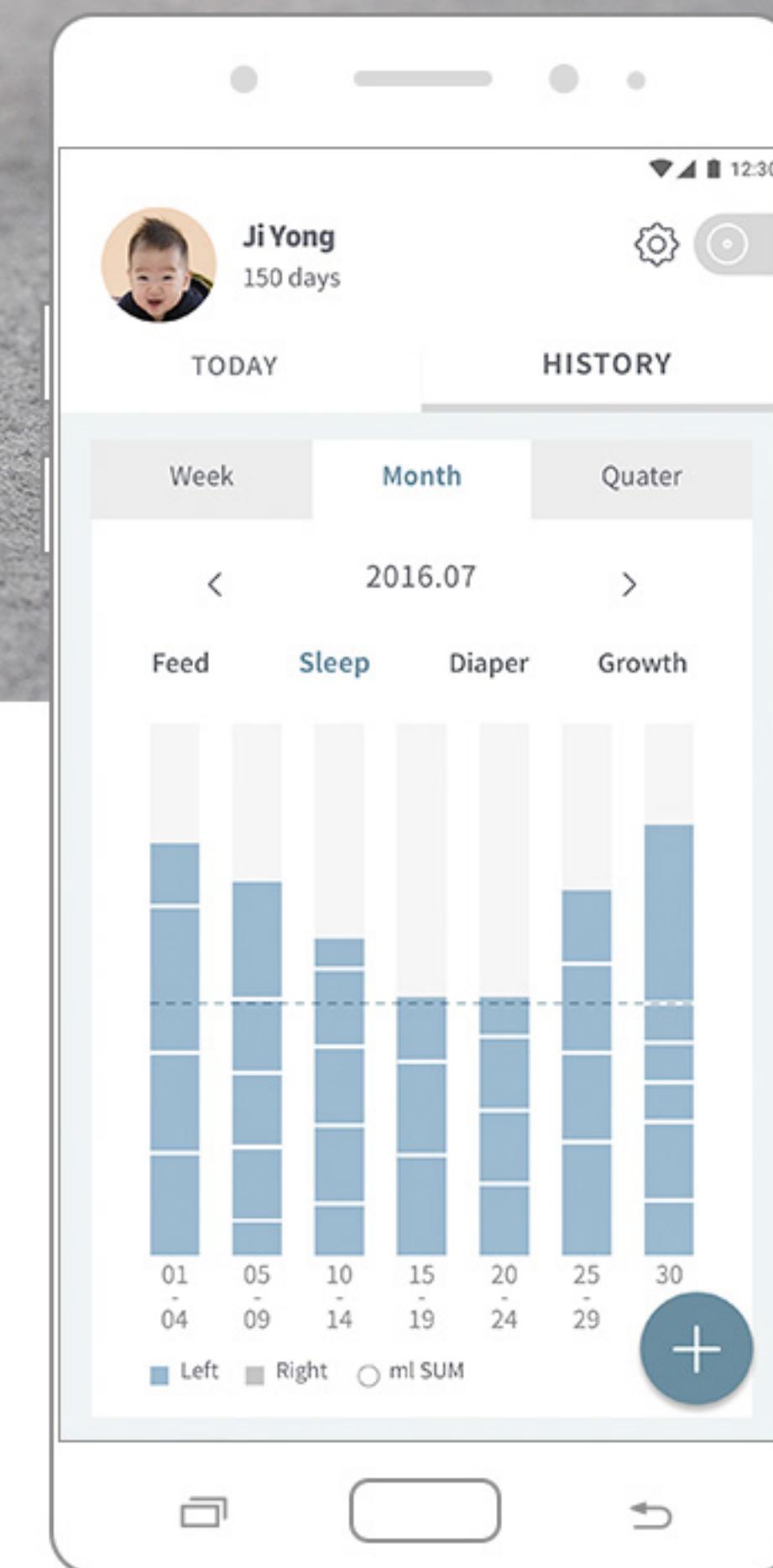


TOTAL INFANT CARE SERVICE

“
인영씨는 매일 눈에 띄게 성장하는 아이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지만 바쁜 육아 틈틈이 적기가 번거롭습니다. 나중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죠. 일일이 직접 기록하지 않아도 누군가 아이의 상태를 빠짐 없이 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꺼내 볼 수 있는 육아일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띠의 힙 시트에 있는 마카롱 센서가 아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앱에 자동 업데이트하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기의 생활패턴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육아 노하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DR.MACARON

Dr. Macaron은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힘들고 어려운 육아가 아닌 마카롱 같이 ‘달콤한 육아’로 만들어 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당연시 해왔던 사용자의 어려움을 고민하여 첨단기술과 디자인으로 세상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포옹을 완성해 낸 Dr. Macaron.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C-Lab이 일구어낼 사용자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결과물을 기대해 봅니다.

design.samsung.com >

DESIGN SAMSUNG